

# 숲 속 곤충 만나러 가자!

## 무주반딧불축제 곤충관, 방문객들에 '인기'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곤충과 민물고기를 주제로 한 전시관들이 가족단위는 물론, 단체 방문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1층에 마련된 납대천 생태수족관(금강 민물고기 & 수서곤충 전시관 / 관람료 무료)에는 금강에 서식하는 26종의 어류(쉬리, 피라미, 쏘가리 등)와 수서

곤충(게아재비, 검정방개, 장구애비 등) 10종이 전시되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나 유치원 단체 관람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다"라며 "무주반딧불축제 생태수족관에서 다양한 수서 곤충들과 만나보시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교사 김 모 씨는 "비가 와서 볼게 있을까 걱정을 하며 왔는데

실내에 여러 곤충들을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돼 있어 만족스러웠다"라며 "책이나 TV로만 보던 생물들, 특히 우리 무주에 사는 물고기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 이렇게 보게 돼서 기쁘다"라고 전했다.

예체문화관 1층 대공연장에 마련된 반디나라관 내 곤충체험관도 인기가 높다. 무주반딧불축제 제진위원회에 따르면 무주군에 서식하는 30여 종의 곤충들이 전시 중인 곤충체험관에는 9월 2일 현재 5천여 명이 다녀갔다.

곤충체험관은 실제로 장수풍뎡이 만지기와 명주잠자리 애벌레(개미지옥) 먹이주기, 나비체험, 식용곤충 고스애, 쌍발이 맛보기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곤충체험관은 반딧불이관(반딧불이 생태학습관, 판타지관 등), 형실지공관(살아있는 반딧불이 관찰)과 연계해서 볼 수 있으며 관람료(경로, 36개월 미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료)는 1인 3천 원, 무주군민이면 1인 2천 원이다.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납대천 생태수족관(무료)과 곤충체험관(반디나라관 내 다른 체험관과 연계 관람 가능 1인 당 3천 원, 무주군민 1인당 2천 원)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평일 9시)다.

/무주=전문선기자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곤충과 민물고기를 주제로 한 전시관들이 가족단위는 물론, 단체 방문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즐길거리 풍성

## 한누리 종합운동장 공연 · 누리파크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올해로 13주년을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슬로건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장수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할 예정이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장수랑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메인 무대를 기존 의암공원 잔디광장에서 한누리

종합운동장으로 옮겨 대형공연들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누리파크에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의암공원은 휴게와 쉼터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했으며 각종 일루미네이션을 조성해 야간경관 조명 등 다채로운 포토존을 구성했다.

새롭게 변신한 이번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Red Food 신드

롬을 일으키며 가족과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화색빛 도시의 목을 때를 씻어내고 붉은 색이 만연한 장수의 가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행사장 구성을 전면 개편해 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올 가을은 장수에서 어느 때보다 붉게 물든 축제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진안군, 한가위 임도 22일까지 한시적 개방

진안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앞두고 차량 통행을 일부 제한했던 구간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특히 성묘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임도 변 잡

목과 잡초 제거 등 풀베기 작업이 한창이다. 41개 노선 177km 임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통해 토사유실, 노면, 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도 마쳤다.

임도는 산림경관을 위해 만들어진

산림기반시설로서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 기능을 하고 있어 비포장구간이 많아 차량 이용 시 안전운행에 유의해야 한다.

임도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임도 중간에 위치한 국가지점번호판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어 산림 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푸드 행복먹거리 스테디 그룹에서 개발한 음식이 전주에 위치한 진안 로컬푸드 토요 직거래장터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 진안푸드 개발음식 로컬푸드 장터서 인기

### 10여 종 메뉴 중 홍삼 치즈컵밥 · 닭발 등 4종 선보여

진안푸드 행복먹거리 스테디 그룹에서 개발한 음식이 전주에 위치한 진안 로컬푸드 토요 직거래장터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진안군은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농가맞춤 운영자와 음식솜씨 보유자 12명으로 구성된 진안푸드 행복먹거리 스테디 그룹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스테디 그룹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간편한 요리법,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한다.' 뜻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위해 10여 종의 메뉴를 개발했다.

이 중 홍삼 치즈컵밥, 치즈부꾸미, 닭발, 식혜를 지난 8월부터 진안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에서 시식 행사를 통해 먼저 선보이게 됐다.

홍삼 컵밥은 홍삼을 넣고 지은 밥에 진안돼지고기, 표고버섯, 김치 등으로 볶은 비빔소를 넣어 계절 야채와 소스로 비빔 음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먹기 편하고

든든한 한끼로 손색이 없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삼부꾸미는 양념소를 넣고 찹쌀과 멥쌀로만 빚어 기름기 없이 구워 쌀 소비 촉진 뿐만 아니라 식사대용으로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 호성동에 사는 조모(55)씨는 "직장을 다녀 매주 토요일 진안 로컬푸드에서 장을 보는데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여기서 찾았다"며 "이제는 토요일마다 진안 로컬푸드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군은 현장 경험이 많은 전주기 전대학 호텔외식조리과 김은지 교수를 초빙 9월중 컨설팅 수업을 진행하여 업그레이드 된 맛을 찾을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음식은 진안홍삼축제, 농업인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선을 보이고 소비자의 반응을 접목하여 관심있는 음식점과 휴게소운영자 등 개발 음식 레시피를 공개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용담면 군민의날 체육대회 선수 발대식

진안군 용담면(면장 최상오)은 3일 진안군민의 날 기념 군민화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용담체련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선수단, 체육회 임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발대식을 가졌다.

인구수가 적은 용담면은 지난 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선수단 발대식을 갖고 선수단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용담은 할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날 발대식에서 관내 중식당인 '정원재장'이 어르신들과 선수단을 초청하여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장수군이 천혜의 자연 산림환경을 활용한 산림레포츠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산림을 활용한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점차 다양하게 증가하는 산림 레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조성 위해 실시할 계획에 착수한다.

산림레포츠는 산림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로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산악오리엔티어링 등으로 레포츠 시설이 조성되면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경기대회가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은 지정교육기관에서 산림레포츠 지도사를 육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산림레포츠 저변을 확대하도록 산림청이 관심을 기울이는 산림휴양 서비스 사업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특별교부세가 마중물이 돼 2021년까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선수들과 동호회원들에게 맞춤형 기반시설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50% 대폭 완화

진안군은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기존보다 50% 대폭 완화한다.

군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완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한 가구의 구제가 가능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판정함에 따라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군은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데 이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추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